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⑪ '호텔 델루나'(2019)

달의 본래 모습은 변한 적 없다

우리의 신화와 전설을 잘 담아낸 드라마로 '전설의 고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현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거쳐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후세계로 이끌어 주는 저승사자가 술하게 등장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난 처녀 귀신들의 한을 풀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구미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렇게 '전설의 고향'은 우리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캐릭터를 TV에 구현해낸 훌륭한 SF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가 구현하는 이야기는 〈삼국유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연려실기술〉 같은 고전에 실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드라마로 고전을 리메이크한 셈이다. 리메이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의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얼마나 설정을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호텔 델루나'는 무척 흥미롭다.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은 벌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지도 못하고 나무에 영혼이 묶여 사는 주인공. 마냥 애잔하기만 할 것 같은 그는 온갖 사치를 즐기면서 화려하게 사는 호텔 사장님이다. 더욱이 이제 막 호텔에 도착한 신규 고객에게서 이승에 남겨둔 재산을 서비스 요금으로 뜯어내는 능수능란한 인물이기도 하다. '찬란하고 쓸쓸하신 도깨비'가 그랬듯이 이 드라마는 전설 속에나 있을 법한 캐릭터를 이 시대에 맞는 개성 넘치는 인물로 훌륭하게 리메이크했다.

1300여 년 전 고구려 유민 출신의 무사 장만월(배우 이지은)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유품을 관에 담아 끌고 다니며, 죽은 이들의 영혼을 쉬게 한다는 객잔을 찾아다니다가 마고신(배우 서이숙)을 만난다. 마고신이 건네준 월령주를 마시는 순간, 만월의 검인 만월검이 월령수에 꽂혀 흡수되면서 만월은 불로불사의 존재가 된다. 그와 동시에 달의 객잔의 주인으로서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해야 하는 벌이 시작된다.

한편 달의 객잔은 1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호텔 델루나가 되었다. 이곳은 죽은 이들을 위한 호텔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지배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평생 만월을 위해 일한 지배인의 수명이 다해가는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새 지배인은 하버드대학교의 MBA를 수료한 초엘리트 호텔리어 구찬성(배우 여진구). 이들 외에 500년째 일하고 있는 바텐더 김선비(배우 신정근), 200년째인 객실장 최서희(배우 배해선), 70년째인 프론트맨 지현중(배우 표지훈) 등이 호텔을 찾아온 다양한 죽은 이들을 맞이하여 사신(배우 강홍석)이 저승으로 인도하도록 돕는다.



전설 속 신 등장·죽음 매개 이야기 담겨
2019년판 '전설의 고향' 리메이크인 셈
시대·근기 따른 불교 진리 리메이크 기대

만월과 찬성은 갖가지 사연으로 호텔을 찾아온 이들의 억울함이나 한을 풀어주고, 때로 마고신이 나서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아있는 자에게 응당의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호텔 델루나는 '전설의 고향'의 2019년판 리메이크라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호텔 델루나이기 때문에 드라마에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마고신'부터 너무도 익숙한 '사신', 그러니까 '저승사자'까지 전설 속의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고, 죽음을 매개로 신들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시대 배경은 달라도 '전설의 고향'에서 본 듯한 인물의 상황과 에피소드들, 전하려는 주제도 분명하다. 매회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제대로 못 살면 세세생생을 거쳐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달과 관련한 유명한 게송이 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신(報身)을 달에 비유한 '보신송'이다.

달이 은하수를 오가면서 점점 둥글어지니
(月磨銀漢轉成圓)
하이얀 달빛 대천세계를 밝혀 주네
(素面舒光照大千)
성성이가 팔을 이어 부질없이 그림자 잡으려 하나(連臂山山空捉影)
둥근 달은 본래 청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네.
(孤輪本不落靑天)

초승달을 매일 은하수에 갈아서 희게 만드는 일이 수행이고, 수행이 완성되어 보름달이 되면 둥근 달빛이 세상을 환히 비친다는 내용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그 수행의 공덕을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누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강에 비친 달을 본 성성이는 그곳에 달이 있는 줄 알고 팔에 팔을 이어 달을 건지려 한다. 하지만 달은 강에 내려온 적이 없이 항상 하늘에 있으니 어쩔 것인가.

사실 달은 강에 내려온 적도 없지만 둥글어지거나 검어진 적도 없다. 우리 눈에는 초승달, 반달, 보름달 등으로 보일 뿐, 달의 본래 모습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게송은 보름달로 나타난 보신이나 강에 비친 화신(化身), 변하지 않는 애초의 달인 법신(法身)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장만월이 이끄는 달 객잔의 근본적인 역할은 죽은 이들이 쉬다가 편안하게 저승길로 나서게 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만월당에서 만월관으로, 또 호텔 델루나까지 이름과 모습을 바꿀 뿐이다. 달의 속성 또한 그렇다.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이 바뀔 뿐 애초의 달은 변한 적이 없다. 불교의 진리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시대와 사람의 근기에 맞게 팔만사천 가지 불교로 '리메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장만월은 1300년을 월령수에 묶여 있었으니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활약하시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지나는 길에 만월(滿月)이를 만나셨다면 '보신송' 한 구절 전해주셨을 텐데. 그랬다면 만월도 훨씬 일찍 자신을 묶어두었던 속박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말세의 파계 비구 옹호
지장보살 출중 역량 주장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㉑ 〈지장십륜경〉의 주요 내용

〈지장십륜경〉의 서문과 함께 책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세의 파계 비구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열 가지로 따로 간추려서 위해(危害)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이지요.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말세의 파계 비구가 계율을 깨뜨리고 악(惡)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비구의 출가한 계덕(戒德)의 힘이 오히려 세어서, 그것은 마치 우황이나 사향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계율을 깨뜨린 말세의 파계 비구라 할지라도 일체의 하늘, 용, 야차, 건달,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人非人) 등이 그들을 옹호하고 지켜내려 하는 것은 그 파계 비구 등에게는 무량한 공덕 보배의 복장(服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전에서 '지장보살의 역량'은 승려에 대해 대·소승의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함을 명령함과 동시에, 속인의 삼보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십륜경〉의 시대 배경이 말법시대인 불법 쇠멸의 시대로, 계율적인 면을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법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법을 따라 출가한 자라면 계행을 지킨 비구이든 계행을 깨뜨린 비구이든 계행이 없는 비구이든 간에, 나는 오히려 전륜성왕을 비롯한 다른 국왕과 대신들이 세속의 법에 의지하여 채찍과 몽둥이로 그 몸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어 갖은 모욕을 더하거나, 내지 팔과 다리를 베어 그 생명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늘, 하물며 법에 의지하지 않는 일이겠느냐?"라고 말세의 비구를 향한 강력한 옹호의 교리가 설해져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지장의 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력(定力)에 의해 그 불토의 일체유정들의 모든 고통, 투쟁, 질병, 기근 등을 소멸해서…오탁악세의 부처가 없을 때 일체의 유정들을 성숙시키면서 삼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 몸을 출현해, 대법륜을 굴려 구제하는 것을 그 본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장보살의 본래 서원은 모든 중생의 구제와 함께 성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장보살의 공덕과 교화력이 여타 보살들을 능가하는 모습도 살필 수 있습니다. "선남자여, 가령 어떤 이가 미륵, 관자재, 묘길상, 보현 등을 공양하여도…일식경(一食頃) 동안 지장보살을 지심 귀의하여 칭명, 염송, 예배, 공양하며, 원하는 바를 구하여 속히 만족한 것만 같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일체 유정을 이익 안락하게 하여,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지장보살의 위신력은 여타의 보살들보다 유정들을 이익 되게 하며, 그 희구하는 바 소원을 성취시키는 힘이 더욱 출중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과를 부정한 과보와 또 참회를 하여서 멸죄 받아 얻는 이익의 과보를 상세하게 설하였습니다. 또 〈지장십륜경〉을 수지 독송하면 소원이 빨리 성취된다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관음경〉과 같은 곳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 즉 독각승과 성문승이란 어떠한 이들인지 보살들과 성문, 독각승들의 차이점을 밝히고, 각자의 설법의 다른 점을 상당한 양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전의 번역 당시의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장십륜경〉의 내용 중 더욱 중요한 점은 설법사의 인지사항에 있어서 그들이 읽어야 할 부분, 상대에게 법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설명, 불교를 신앙하는 이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5무간대죄 중 4종의 근본대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결코 무간지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차로 〈지장십륜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지만,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한 가지를 더 들어봅니다. 가령 수행대중이 같은 공간에서 정진할 때 계를 어긴 파계승의 '빈출법(가려내는 법)'은 당시 율법과도 관련되어 동거승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상당한 지혜를 요구하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지장십륜경〉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열 가지 정책인 왕륜(王輪)에 대하여 불법(佛法)의 열 가지 내용인 십불륜(十佛輪)에 의하여 열 가지 악업(十惡業)을 뒤집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경(經)의 제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 경이 설해지는 배경과 그 동기에 대한 설법이 제1장의 서품(序品)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미래를 여는 세계적 불교성지 탄생에 함께해 주십시오.

크게 제도할 도량 거제도 제석산에 천연 와불이 수호하며 거북이가 알을 낳고 대붕이 내려앉는(대붕안착형) 영험한 명당에 더븜비전센터를 창건합니다.

세계 건축 명장이 초현대적 감성으로 불교 우주관을 녹여 남섬부주에서 9산 8해를 지나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구현했고,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붓다로드에 자화상의 도예 원불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 제석천 위 허공에 뜬 불상, 바다 위에 떠 오른 해수관음보살상, 구품연지, 금강저, 종이로 만든 법당 기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창건불사 하십시오.

도예원불 동참으로도 창건 공덕주가 됩니다.
삼천 불자들의 소망을 모아 대작 불사를 시작합니다.
자손 대대로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될 위대한 불사에
불자님의 정성과 원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예원불 108만원(100일 기도축원)
해수관음보살 1080만원(1000일 기도축원)
계 좌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더븜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영산대학교 동양상담학과 교수)

